

Style

조선일보

FALL 2017



FENDI





18



22



표지에 여배우 고소영이 착용한 의상과 가방은 모두 펜디의 2017 F/W 컬렉션이다. 커피 레디 소제의 레귤러 피카부 백에 플라워 모티브 스트랩 유를 매치해 더욱 매력적이다. 문의 펜디 02-2066-9023



08



06 **FLOWERS FROM ANOTHER WORLD**

실제엔 존재하지 않는 푸른색 양귀비가 페르시안 램 코트의 소매 위에서 싱크로 피어났다. 칼 라가펠트가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실적인 정원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08 **DEAR DIVA**

강렬한 아름다움, 당당하고 옛지 않는 스타일. 이번 시즌의 펜다가 선택한 디바는 여배우 고소영이다.

16 **TIMELESS PEEKABOO**

계절마다 바뀌는 유행에 구애 받지 않고 마르고 덮도록 들고 다니며 세월과 함께 쌓이는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방, 바로 피카부이다. 시련되고 감각적인 여성들을 위한 클래식의 대명사를 소개한다.

18 **FENDI 2017 F/W WOMEN'S COLLECTION REPORT**

칼 라가펠트는 펜디의 장인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 섬세한 수공예에 집중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과거의 것들이 오늘날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반복되는 붉은 색의 에너지와 만나 새롭게 태어났다.

20 **FENDI 2017 F/W MEN'S COLLECTION REPORT**

펜디의 2017 F/W 남성 컬렉션에선 펜디의 존재 특이인 고급스러운 유머가 또 한 번 진가를 발휘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인 다채로운 컬러를 얻고 패셔너블하게 진화하여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야기한다.

22 **FENDI FOR YOUNG BAE**

K-팝 아티스트 태양이 펜디와 함께 자신의 열정과 믿음을 그리고 펜디를 상징하는 혁신의 가치를 우트 있게 풀어낸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 'THINK', 'FAITH', 'GRACE'!

24 **F IS FENDI**

펜디의 F가 새로워졌다. 원형의 고리에 펜디의 상징 F를 하나만 더해 완벽한 조형미를 완성했다. 더욱 간축적이고 모던한 새 로고를 입은 액세서리가 여기 있다.



FENDI

Style 조선일보
FALL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원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flowers from Another World

실제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 푸른색 양귀비가 페르시아 램 코트의 소매 위에서 핑크로 피어났다. 칼 라거펠트가 자신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실적인 정원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상상의 세계를 이끌어내는 창조 정신
 펜디의 세 번째 오트 푸뤼르(Haute Fourrure) 쇼인 2017년 F/W 오트 푸뤼르가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말 그대로 '다른 세계에서 온 꽃(Flowers from Another World)'이란 테마 아래, 독보적인 기술을 사용해 모피로 표현한 신비로운 꽃을 무대 위에 올린 것. 아름다움으로 빛을 푸르른 정원에 이국적인 꽃이 뿜어내는 생명력이 흘러넘쳤고, 펜디는 창조 정신으로 자연을 예찬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펜디의 창의력과 장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장인들은 22가지 색의 핑크를 손으로 잘라 1만여 장의 조각을 만든 뒤, 이 조각을 실크 오간자에 하나씩 정성스레 손바느질해 모자이크를 이룬 코쿤 드레스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모피 역사상 최초로 세이블을 탈색한 뒤 주황, 빨강 등 13가지 다채로운 색조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이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다. 핑크의 털을 깎고 실처럼 잘라 금속 느낌이 나는 오간자와 자카드 위에 꽃무늬로 수를 놓기도 했다. 이는 바느질에만 2백 시간이 걸리는 치밀한 작업. 가죽과 핑크를 함께 사용해 부드러운

레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펜디만이 갖춘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인들은 무려 5백 시간 동안 짠 핑크에 인상주의풍 그림을 그렸고, 핑크와 오간자 깃털로 만든 입체적인 아플리케를 장식했다. 그렇게 펜디와 파리의 오트 푸뤼르 공방 르마리에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조화를 이루어 코트와 미니드레스 위에 작약, 붓꽃, 양귀비 등 2천5백 송이의 꽃을 피워냈다. 오트 푸뤼르 쇼에서도 펜디의 장기인 액세서리가 힘을 발휘했다. 액세서리를 담당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실비아 벤주리니 펜디는 실제 꽃에서 영감을 받아 '하네모네', '포피', '아이리스'라 이름 지은 화분 클러처를 선보였다. 가죽으로 만든 꽃잎, 모피와 가죽을 꼬아 만든 수술은 아름답기 그지없었고, 손에 들면 마치 부케를 들고 있는 듯 보였다. 올해도 펜디는 오트 푸뤼르 컬렉션을 통해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최첨단 기술을 마음껏 펼쳐냈다. 진정한 다른 세계에서 피어난 듯 아름다운 꽃들은 패션이 절실하게 갈구하는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었다. 글 남지현(캐럴 에디터)

1, 5 핑크 조각을 공들여 이어 붙인 장인 장인이 돋보인다. 2, 7, 17 다양한 색의 꽃을 손으로 직접 그려 완성한 의상을 입고 있는 모델들. 3 오간자 위에 핑크 꽃을 피워냈다. 4 벨벳과 양피로 꽃잎을 표현한 드레스. 6 핑크로 장식한 레이스 케미즈 드레스. 8 벨벳, 레이스, 양피, 가죽 등 다채로운 소재가 어우러졌다. 9 폭포를 형상화한 아름다운 드레스. 10 장인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의상을 완성했다. 11 오간자 드레스는 햇살이 가득한 정원을 연상시켰다. 12, 13 포피, 아이리스, 아네모네 등의 꽃을 모티브로 한 화분 클러처. 14 예술의 정열함이 흘러넘쳤던 런웨이. 15 상상 속 정원의 정원을 현실로 구현한 칼 라거펠트. 16 오트 푸뤼르의 상징인 칼 라거펠트의 드로잉.



핑크 트라잉을 더한 롱 코트 5백91만원,
베이지 컬러 레굴러 피카부' 백
4백75만원, 컬러풀한 플라워 스트랩 유
1백45만원, 블랙 문은톤 리코코 슈즈
1백36만원 모두 **렌디**.



Dear Diva

강렬한 아름다움, 당당하고 예지 있는 스타일.
이번 시즌 펜디가 선택한 디바는 여배우 고소영이다.
photographed by hong jang hyun



슬릿 디테일 블루 실크 드레스
2백88만원, 브라운 카프 레더 벨트
83만원, 스카이 블루 미니 피카부' 백
4백52만원, 핑크 퍼로 장식한 플라워
'스트랩 유' 2백56만원 모두 **렌디**.



올티컬 패턴 실크 드레스 3백42만원, 칼리콜한 이앙릿을 가미한 미니 '피카부' 백 4백52만원, 블랙 톤은톤 '락코코' 슈즈 1백38만원 모두 **렌디**.



개바딘 소재의 블랙 재킷 3백49만원, 화이트 셔츠 드레스 1백45만원, '락코코' 사이하이 부츠 1백83만원, 부드러운 카프 레드 소재의 '피카부' 에센셜 백 6백81만원 모두 **렌디**.

발카한 소매 디테일의 블라우스
1백82만원, 블루 컬러 롱스커트
2백27만원, 차콜 컬러 레굴러
피카부* 백 4백75만원 모두 렌디.



나뭇잎 패턴 롱 셔츠 2백27만원,
올 심크 소재의 브라운 스커트
2백27만원, 베이지 레굴러
피카부* 백 4백75만원, 삭스와
함께 매치한 레드 락코코 수츠
1백36만원 모두 렌디.



블랙 시스루 각터입 드레스
1천1백98만원 **렌디**.

문의 **렌디** 02-2056-9023

헤어 **임철우**
메이크업 **최사노**
스타일리스트 **최아름**
세트 스타일리스트 **박주영**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슬리브리스 니트 톱 2백89만원,
오픈워크 패턴 롱스커트 2백89만원,
카드 리더 소재의 미니 '피자북' 백
5백51만원, '락코르' 사이징이 부츠
1백91만원 모두 **렌디**.



프리카 **렌디**
가우 **렌디**

timeless Peekaboo

계절마다 바뀌는 유행에 구애받지 않고 마르고 닳도록 들고 다니며 세월과 함께 쌓이는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가방, 피카부.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을 위한 클래식의 대명사를 소개한다.



덜어냄의 미학을 담은 가방

2009년 첫선을 보인 이후, 펜디의 주요 가치인 양면성(듀얼리즘)을 전하는 아이콘 백, 피카부는 무심한 듯 가방을 열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클래식한 백이다. 견고한 형태에 굳터더기 없이 꼭 필요한 장식만 남겨 간결하지만, 시즌마다 가방의 인파 소재를 달리했다. 덕분에 열린 가방 사이로 보이는 대조적인 소재의 조화가 돋보인다. 간결한 디자인은 유행을 타지 않았고, 매 시즌 화려하고 쿼터트적으로 진화하는 소재의 매치 덕분에 피카부 백은 라니아 요르단 왕비, 암브라 메다, 모니카 벨루치, 줄리아 로버츠, 마돈나, 장쯔이 등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들의 사랑을 받으며 펜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피카부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새로운 버전으로 거듭났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든 걸 덜어낸 피카부 '에센셜'이다. '덜수록 많아지는' 은은한 품격과 기품이 담긴 에센셜 버전은 피카부 특유의 중앙 락대를 없애 무게를 덜고 '본질만 남겨두었다. 가방의 안과 밖 모두 다른 가죽을 이어 붙이지 않은 순수한 통가죽만 고수해 부드러운 촉감을 살렸고, 인주머니 역시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한 가죽으로 만들었다. 가방에 사용한 금빛과 은빛의 금속 부품은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요구하는 요즘 추세에 맞게 새로 디자인했다. 앞면의 개폐 장치는 세련된 '물림쇠'로 바꾸었고, 다이아몬드 컷 금속 디테일의 공기역학 디자인을 통해 가방을 여닫을 수 있게 했다. 착용감이 한결 편안해진 다면형 손잡이와 안감을 댄 어깨 스트랩은 피카부를 진정한 궁극의 가방으로 만들어준다. 올가을에도 펜디의 아이코닉 백, 피카부는 보다 정제된 형태에 세련되고 품격 있는 소재를 입고 스타일에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불어넣을 것이다. 덜어냄의 미학을 기억할 것. 글 남지현(객원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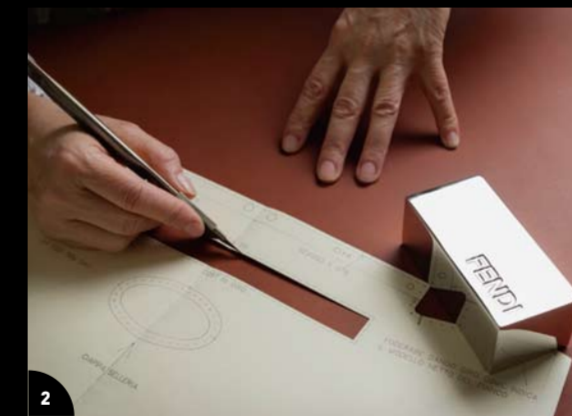


1 자작인 여성의 아이콘, 이말 클루니도 피카부 백을 들었다. 2 자오바나 비타글리아는 미니 사이즈의 노란색 피카부를 선택했다. 3 줄리아 로버츠는 피카부를 크로스보디 메 캐주얼한 분위기로 냈다.

Made to Order



1 스킵하기. 실버이 벤주라니 펜디와 펜디 크리에이티브 팀이 함께 디자인한다.



2 재료 컷팅. 소재를 정확히 선택한 후 장인이 메탈 컷터와 종이 패턴을 이용해 재료를 자른다.



3 구멍 내기. 작은 구멍은 홀 펀처를 이용해 수직안하고, 백 가장자리에 적용하는 구멍은 대개 망치를 사용한다.



4 조립 및 스티칭. 바늘과 실을 이용해 백을 부분적으로 조립하고, 한 명 한 명 손바느질해 가방의 형태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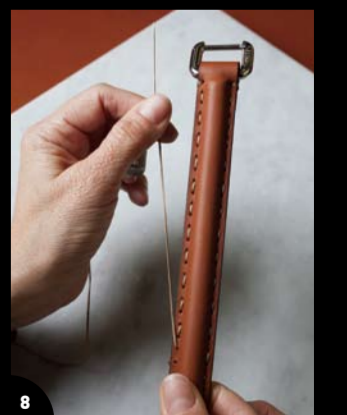
5 매이드 투 오더 클래프트 부착하기. 핸드메이드를 상징하는 셀러리아 실버 명판을 가방 안쪽 중앙에 손바느질로 단다.



6 미무리 작업하기. 가방의 디테일은 작은 브러시를 사용해 세심하고, 부속품을 부착한다.



7 액세서리 부착하기. 가방의 장공장치 역시 세심하게 손으로 부착한다. 피카부의 금속 장공 장치는 견고함을 더한다.



8 핸들 및 숄더 스트랩 부착하기. 핸들 및 숄더 스트랩을 손바느질해 가방 본체와 잇는다. 내부 라이닝 역시 손바느질로 마무리한다.



전통의 영광에 현대의 감각을 더하다

펜디의 2017년 F/W 여성 컬렉션은 핑크로 소매 단을 감싼 회색 헤링본 더블브레스트 코트로 시작되었다. 코트의 어깨는 각이 찢고 허리는 가능하게 재단해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결코 구식처럼 보인다가 나 지루하지 않았다. 모델이 빨강색 반짝이는 페이먼트 부츠를 신고 있었기 때문. 무엇보다 부츠의 컬러, 봉투를 밀봉할 때 사용하는 봉합인 '체탈라카'의 빨간색이 컬렉션을 온통 물들었다. 이는 1950년대 레이디 라이크 룩에 관능미와 더불어 현대적인 분위기를 덧입힌 반전의 장치였다. 전통과 현대의 장점을 취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펜디의 정신이 올라올에도 발현된 것이다. 칼 라거펠트는 이른 새벽, 로마의 거리를 서성이는 영화 속 여인을 뮤즈로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오스트리아 빈의 목판인쇄와 18세기 이탈리아 포장지에 대한 오래된 책인 <파피에르스 도미노테스(Papiers Dominotés)>다. 노트 조각을 찾아온 기법으로 오려내고, 모피를 인레이 기법으로 잘라냈으며, 실크 위에 아칸서스 잎사귀를 프린트하는 등 여러 가지 수공예적인 모자이크가 컬렉션을 창의적으로 완성했다. 정교하게 구축한 기하학적 무늬를 남성 슈트에서 기인한 헤링본과 프린스 오브 웨일스 체크, 오피스 룩으로 제격인 포말한 아이템에 적용해 영화적인 분위기에 장식적이고 현대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이번 2017 F/W 컬렉션에도 펜디는 가방 라인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더블 핸들 박스 백 '런어웨이'와 '트리플렛'을 처음 선보인 것. '런어웨이'는 큼직한 사철 백처럼 보이는 고전적인 가방이지만 사다리꼴로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트리밍해 현대적인 감각을 적용했다. '트리플렛'은 F 로고 한 글자로 구성된 모노그램 고리에 세 가지 크기의 파우치가 달린 작은 가방이라 간편하고 실용적이다. 펜디의 또 다른 잇 백인 '캔아이'에도 트리플렛의 주요 특징인 원형 로고를 적용해 새로움을 불어넣었다. 그렇다면 기존의 더블 F 로고는? 물론 여전히 견제하다. 독특한 기법으로 벨벳 소재의 가방에 안착했으니, 새로운 버전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글: 김지현 (객원 에디터)



Fendi 2017 F/W

women's collection report

칼 라거펠트는 펜디의 장인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 섬세한 수공예에 집중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과거의 것들이 오늘날의 모든 여성을 위해 반짝이는 붉은색 에너지와 만나 새롭게 태어났다.



- 1 어깨를 넓게 강조한 포말한 재킷과 실카한 스카트의 조화.
- 2 인레이 기법으로 모피를 잘라 붙여 그려냈다.
- 3 새로운 F 로고의 '캔아이' 백. 4, 10 어깨를 강조한 건축적인 사철 외장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어우러졌다.
- 5 레이저 커팅으로 기하학적인 무늬를 완성한 노트 웨어.
- 6 영화적인 관능미 흘러넘친 파블레 무대. 7 칼 라거펠트와 실버이 밴추리니 펜디는 매 시즌 아름다운 팀워크를 보여준다. 8, 16 2017년 가을 새롭게 출시한 '런어웨이' 백.
- 9 조형적인 F 로고가 돋보이는 귀고리. 11 독특한 장인의 벨벳 소재 가방은 관능적인 분위기를 전한다. 12 1950년대 레이디라이크 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13 봉투를 밀봉할 때 사용하는 체탈라카의 빨간색이 올 시즌을 물들었다. 14 섬세한 꽃 어플리케 시스루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 15 광 갈라를 입은 더블 F 로고 '캔아이' 백.



1,3 렌드를 정의하는 단어들을 팝 컬러로 표현했다. 2 경쾌하고 유쾌한 파블레, 4,5 컬렉션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의상이 주를 이룬다. 6,7,11,14 아-스트 해링웨이의 어록에서 영감을 받은 단어들은, 8,9 스니커즈와 백팩은 남성 컬렉션을 구성하는 키워드이다. 10 렌드의 남성 컬렉션을 진두지휘하는 실비아 벤추리니 렌디. 12 실용성에 초점을 둔 스니커즈, 13 노랑과 파랑의 강렬한 대비가 인상적인 롱, 15 격식 있는 옷에 애플레저 요소를 더해 유틸을 전했다.

Fendi 2017 F/W men's collection report

펜디의 2017 F/W 남성 컬렉션에선 펜디의 전매특허, 고급스러운 유머가 또 한번 진가를 발휘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 다채로운 컬러를 입고 패셔너블하게 진화해 희망적인 미래를 이야기한다.

낙관적인 태도로 미래를 담다

YES - TRY - LISTEN - LOVE - BLISS - FANTASTIC - TRUST - HOPE - THINK - FENDI. 실비아 벤추리니 렌디는 펜디를 정의하는 단어들로 2017년 F/W 남성 컬렉션을 완성했다.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어휘에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낙관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것. 그것이 실비아 벤추리니 렌디가 원하는 것들의 핵심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어록에서 영감을 받은 보편적인 단어들을 옷, 가방, 액세서리에 담았어요. 아주 단순하고 흔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어려운 순간에 우리 도와줄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단순한 단어들은 헤시태그처럼 깎은 모피 위에서 통통 튀는 색깔을 입고 패셔너블하게 재탄생했고, 컬렉션은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과 분홍색 등 유쾌한 컬러들로 활기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담은 옷들은 굉장히 실용적이다. “격식 있는 옷에 스트리트 애플레저 스타일을 더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일상에서 현실적이고 편안한 옷을 입고 싶어 하니까요. 사무직 종사자들조차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죠. 그래서 옷에는 나일론과 네오펠렌을, 신발에는 고무같이 아주 실용적인 소재를 펜디 특유의 고급스럽고 유쾌한 방식으로 사용해 간결하고 편안한 형태와 제품을 만들었어요.” 실비아 벤추리니 렌디의 말처럼 고무 지퍼가 달린 니트 조끼의 수트, 팬츠, 점퍼 같은 스포티하면서 편안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색상의 줄무늬를 인레이한 시어링 또는 밉크 소재의 재킷과 코트, 앞면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FANTASTIC FENDI'라고 쓴 갈색 밉크 코트는 동시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긍정적인 분위기와 단어 놀이는 가방과 액세서리로 이어진다. 기능성 소재로 만든 카메라 케이스, 혁신적인 형태의 백팩 무이, 양말을 결합한 스니커즈, 시어링 슬리퍼 등 하이패션과 만난 펜디식 유머는 이번 시즌도 남성들의 삶을 보다 유쾌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준다. 글 남지현 객원 에디터



Fendi for Young Bae

K-팝 아티스트 태양이 펜디와 함께 자신의 열정과 믿음, 그리고 펜디를 상징하는 혁신의 가치를 유틸하게 풀어낸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 'THINK', 'FAITH', 'GRACE'!

태양과 같은 가치를 지니다

영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빅뱅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 태양이 펜디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펜디와 함께 자신의 가치와 스타일을 담은 캡슐 컬렉션 '펜디 포 영배'를 선보인 것. 2017 F/W 남성 컬렉션의 핵심 주제인 '펜디 보케블러리(vocabulary)'의 연장선상인 이번 캡슐 컬렉션은 태양이 선택한 단어 'THINK', 'FAITH', 'GRACE'를 힙합과 로큰롤 정신이 느껴지는 재킷, 티셔츠, 파우치, 스니커즈와 열쇠 참에 담았다. "THINK, FAITH, GRACE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단어죠. 저에게 창조 정신이란 신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적인 인간 본성이고, 이를 영감이라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제 좌우명이에요." 캡슐 컬렉션의 색상은 태양이 좋아하는 검은색을 바탕으로 팜 컬러를 입은 단어를 조합해 풍부한 디테일을 은은하게 표현했다. 이는 태양이 좋아하는 꽃인 데이지와 어우러져 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펜디의 뛰어난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이번 컬렉션은 펜디와 태양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스타일링 가치인 혁신과 쿨함을 잘 보여준다.

글 남지현 객원 에디터



1, 5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펜디와 캡슐 컬렉션을 함께 선보인 태양. 2, 3, 4, 9 태양의 가치와 스타일을 정의하는 단어들인 'THINK', 'FAITH', 'GRACE'를 힙합과 로큰롤 정신이 느껴지는 재킷, 티셔츠, 파우치, 스니커즈와 열쇠 참에 담았다. 6 태양이 좋아하는 검은색을 바탕으로 팜 컬러를 입은 단어를 조합해 풍부한 디테일을 은은하게 표현했다. 이는 태양이 좋아하는 꽃인 데이지와 어우러져 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펜디의 뛰어난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이번 컬렉션은 펜디와 태양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스타일링 가치인 혁신과 쿨함을 잘 보여준다.

FENDI



f is Fendi

펜디의 F가 새로워졌다. 워형 고리에 펜디의 상징 F를 하나만 더해 완벽한 조형미를 완성했다. 더욱 건축적이고 모던한 새 로고를 입은 액세서리가 여기 있다. *photographed by won young jung*

(위부터) 메달 소재 F 로고로 장식한 캔이이 백 3백34만원, 더블 F 로고 인브로이더리 캔이이 백 8백35만원, 링크 펜디 워치 89만원, 더블 F 로고 슬라이드 슈즈 91만원 모두 펜디.



소매에 링크를 트림한 울 소재 재킷 4백41만원, 실크 소재 스커트 1백82만원, 파이톤과 송이자가죽으로 완성한 트리플렛 클러치 1백36만원 모두 펜디.



알라베 가죽과 메달 소재의 귀고리 66만원 펜디.



실크 소재 블리우스 1백만원, 울 소재 조거 팬츠 1백87만원, 송이자가죽 소재 미니 사이즈 캔이이 백 2백24만원 모두 펜디.



실크 사스루 소재 카테일 드레스 1천1백39만원, 피아몬 가죽 소재 마이크로 사이즈 캔아이백 1백43만원, 렌즈에 로고를 프린트한 메탈 프레임 안아웨이 선글라스 60만5천원 모두 **렌디**.

크레드 드 신 소재 플리워 패턴 셔츠 2백27만원, 울 실크 소재 스커트 2백27만원, 메탈 로고를 다한 송아지가죽 소재의 캔아이백 3백34만원 모두 **렌디**.



울 소재의 니트 탑 2백39만원, 무늬가 돋보이는 레이저 커팅 니트 스커트 2백39만원, 패아틴트 송아지가죽 락코코 사이즈 아이부츠 1백81만원, 프린지 장식의 송아지가죽 소재 캔아이백 바게트 백 4백9만원 모두 **렌디**.

(위에서 송아지가죽 소재 화이트 컬러 레귤러 사이즈 안아웨이백 2백73만원, 송아지가죽 레드 컬러 스몰 사이즈 안아웨이백 2백41만원, 양말을 닮은 듯 보이는 핑크 소재 로코코 부티 1백36만원 모두 **렌디**.)

문의 **렌디** 02-2056-9023

모델 **우연재**
진행 **남지현** (개인 에이전트)



FENDI

